

취업 장애인 1인가구의 대인관계능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분석*

The Effect of Interpersonal Skill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mploy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Single-Person Households: Self-Esteem Mediation Effect Analysis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 교수 박수선*
승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강사 심다연**

Dep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Park, Su Sun
Dept. of Baird College, Soongsil University
Part-time Lecturer Shim, Da Ye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는 취업 장애인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대인관계능력과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장애인 1인가구가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7차년도 2차 웨이브 자료(2022) 중 1인가구 828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SPSS Process Macro 4.3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대인관계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관계능력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인관계능력이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능력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대두되는 현대 사회에서 취업장애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 1인가구 스스로 자신의 삶에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제어 : 장애인 1인가구,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help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single-person households maintain a happy life by analyzing how interpersonal skills necessary for community adaptation and self-esteem, which are personal factors, affect life satisfaction. The self-esteem mediation effect was verified with SPSS Process Macro 4.3 using data on 828 single-person households sourced from the seventh wave of the Disability

*본 원고는 2023년 11월에 개최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주저자: 박수선(sunybono@seowon.ac.kr), <https://orcid.org/0000-0002-2617-4637>

***교신저자: 심다연(sdy@ssu.ac.kr), <https://orcid.org/0009-0002-7670-4293>

Employment Panel Survey(2022) conducted by the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of the Korea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skills and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hile it was found that higher self-esteem was associated with higher life satisfaction, interpersonal skill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is association. The path from interpersonal skills to life satisfaction via self-esteem was deemed statistically significant, suggesting that self-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skills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 the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 a modern society in which the problem of social isolation experienced by individuals in single-person households is emerging. Furthermore, it provides a direction for these individuals to become the main actors of their own lives.

Key words :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terpersonal Skills,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I. 서론

국내 인구가 3년째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는 점점 증가하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최근 자료(행정안전부, 2023)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41%로, 천만 가구에 가까운 927만 4,256가구를 차지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여성가족부, 2021)과 가족실태조사(김영란 외, 2021)에 1인가구를 포함하였지만, 장애인 이면서 1인가구와 같은 중첩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는 미흡한 편이다.

중앙정부는 2020년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정부합동 1인가구 정책 TF를 구성하여, 소득과 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영역의 생활기반 5대 분야의 1인가구 대상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기획재정부,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2022) 조사에서는 주거, 고용, 소득·소비·자산, 건강·복지, 여가, 안전 영역으로 구분하여 1인가구 관련 통계를 종합정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도 1인 가구 관련 조례들을 작성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주거영역은 주거 정책(설동필·우윤석, 2012; 김신주, 2020), 주거실태(채성주, 2015; 임미화, 2020; 임성욱, 2022), 주거 환경 요구도(김진영, 2013; 이소영·엄순철, 2018)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안전 부문 연구에서는 주로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생활안전(장재원·이지원, 2019; 원유진·조택연, 2020)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1인가구 생활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강은나·김혜진·김영신, 2017; 김은주·김향·윤주영, 2019)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1인가구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분야가 확대되어 가지만 주거, 돌봄, 건강, 소득 등 각 부문에서의 복합적 취약성을 가질 것(윤민석·변금선·이영주, 2022)으로 예상되는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지원은 1인가구 정책 뿐 아니라,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국내 장애인 복지정책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1인가구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별도 정책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서울시 자치구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지만 장애인 1인가구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윤민석 외, 2022). 최근 각 지역 가족센터에서도 1인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여성가족부, 2021) 장애인 1인가구 관련 사업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장애인실태조사 분석결과, 장애인 1인가구에서는 장노년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1) 주거부담이 크고 만성질환이나 우울 비율이 높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취약한 경우(윤민석 외, 2022)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재 1인가구 정책이나 장애인 정책 모두 구체적인 대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 자체의 어려움뿐 아니라, 주변인과의 상호작용 한계, 접근가능 장소의 제한, 활동기능 제한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느끼기 쉽다(강담정, 2022). 특히 장애인 1인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1인가구라는 두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장애인 다인가구보다 낮을 수 있다(박명숙, 2012; 박주영, 2018).

장애인에게 취업 활동은 생계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문영임·이성규·김수정, 2020; 서원선·이수용, 2017)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은 취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는 비장애인들에 비해 어려운 실정인데, 2022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0%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 격차는 28.4%이며, 실업률도 4.5%로 전체 인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지 외, 2023). 또한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

하여도 낮은 직무만족과 대인관계 어려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면서(장수빈, 2019),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적 자원은 위축되기 쉽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높은 생활만족도를 형성하기 위해 장애인 스스로의 능력을 파악하고 강화해야 한다(강담정, 2022). 1인가구가 다양한 가구 유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역량인 대인관계능력 수준은 어떠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는 것은 장애인의 가구 유형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1인가구의 특징을 파악하고 1인가구 장애인의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은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양한 자원 관리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모색하는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의 연구대상과 주제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1인가구가 증가하는 현재 시점에서 취업활동 중인 장애인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대인관계능력과 자아존중감을 분석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1인가구의 대인관계능력과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수준인가?

둘째, 장애인 1인가구의 대인관계능력과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장애인 1인가구의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능력과 생활만족도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1인가구 개념 및 특성

1인가구는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 개념으로(황경란 외, 2021) 우리 사회 가구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인가구는 2005년에는 20.0%였으나, 2021년 현재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 6천 가구로 2050년에는 3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22). 연령별 비중은 29세 이하 19.8%,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으로 나타나(통계청, 2022) 청년층과 노년층이 1인가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1인가구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생활이 2년 이상이며, 현재도 1인가구를 유지하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임상욱·전지혜, 2021)'이라고 대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1인가구 의미는 현재 국내

의 1인가구 개념인 단독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생활단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장애인등록이 되어있고 거주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이 장애인 1인가구 개념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인가구 중고령장애인 개념에 대해서는 '동거인 없이 생활하는 40세 이상 장애인(나대웅·이정화, 2023)'으로 정의하여 40대 이상을 중년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1인가구의 대표적인 특징을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장애유형,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장애인 1인가구 비율은 27.2%이고,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인 경우가 31.8%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체장애가 30.3%로 다음으로 나타났다(김현지 외, 2023). 장애인 1인가구를 성별과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남성이 38%, 여성 61%로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고(김성희 외, 2017) 장애인고용패널(2020)의 경우 1인가구 평균 연령은 40대로 분석되었다. 고용패널의 경우 응답하는 장애인이 근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주요 시기가 40대인 것으로 보여진다. 소득수준은 장애인 1인가구 약 80%가 월 1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60대 이상 여성 장애인 1인가구는 다른 연령대의 장애인 1인가구 보다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인가구 고령장애인과 다인가구 고령장애인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다인가구 집단에 비해 1인가구는 월 소득이 낮고, 차별경험이 많으며,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사회활동 참여도가 낮고, 소득계층에 대해 주관적으로 하층이라고 판단하는 장애인들이 많아(박주영, 2018), 노년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소득 보장 지원과 사회참여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2. 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 및 자아존중감

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생활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주요한 예측요인(임정후·이성규, 2023)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인관계능력이란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데(배성만, 2015),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라는 의미를 지닌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대인관계능력(장수빈, 2019)은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 대인관계가 다양한 장애인 임금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장애인 임금 근로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권오형·문재우, 2018)는 취업 장애인 1인가구의 활발한 대인관계 형성이 생활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가구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지원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의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 또는 자신의 유능성과 영향력에 대한 자기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Coopersmith, 1981) 장애인에게 자아존중감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직접 줄 뿐만 아니라(고민석·김동주, 2014; 박현숙, 2014) 생활만족에도 매개효과로서 영향을 주는 것(강담정, 2022; 김자영·한창근, 2016)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원인이 되며(문성제·손민성·최만규, 2017),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동욱, 2023; 허세미·이예나, 2023).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경제활동과 같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장애인 1인가구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생활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3.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이란 삶의 질, 행복감, 주관적 복지 등과 유사한 개념이며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연옥·임경원·이혜진, 2012). 생활만족은 장애인 복지의 핵심 내용으로 장애인의 생활만족은 장애 특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다(고민석·김동주, 2014). 1인가구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생애주기별 생활만족도 분석(김정은 외, 2023; 서지원·양지운, 2017), 특정 연령대별 만족도 분석(서지원·이수진, 2021; 송혜림·강은주, 2021; 이현민·최미선, 2022) 등으로 연령대별 생활만족도 현황과 그 차이를 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장애와 같은 1인가구 특성별 조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장애는 신체 기능 제약과 심리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부문에 제약을 가져와 장애인 개인의 역량강화와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장애인 통계연보(김현지 외, 2023)에서는 장애인의 86.2%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6~64세 이하 중 37.2%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증장애의 경우(37.1%)가 경증장애인(31.6%)보다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김현지 외, 2023)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박주영, 2018, 2019; 임정후·이성규, 2023) 결과를 종합하면, 대인관계능력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유형 특성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취업상황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7차년도 2차 웨이브 자료(2022)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인 2차 웨이브 참여자들은 2016년 5월15일 기준 국내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으로 핵심 생산가능인구 연령인 만 15~64세에 해당된다. 총 4,577명의 장애인 중 현재 다른 가구원이 없다고 응답한 1인가구 828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독립변수는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와 관련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인관계능력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는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단일문항을 사용하였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했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장애정도, 연령, 최종학력,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사용하였다.

1)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Schlein, Guerney & Stover(1971)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석균(1994)이 수정 보완하였고 이후 박현선(1998)이 선별하여 활용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와 관련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①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다 ②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기 전에 말을 건다 ③ 나는 친구가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잘 들어준다 ④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잘 해준다 ⑤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싸우지 않고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⑥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 때 덩달아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다 ⑦ 친구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는 .861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긍정적 평가 문항과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부정적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 평가 문항은 역채점하여 분석하였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는 .686으로 나타났다.

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1점이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5점 '매우 만족한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선정한 변수는 성별, 장애정도, 연령, 최종학력,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사용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0, 남성을 1로, 장애정도는 '심하지 않은 장애'를 0으로, '심한 장애'를 1로 재코딩하였다. 연령은 범주화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1은 15~29세, 2는 30~39세, 3은 40~49세, 4는 50~59세, 5는 60~70세로 가공된 문항이다. 최종학력은 1 무학, 2 초졸, 3 중졸, 4 고졸, 5 대학(4년제 미만) 졸업, 6 대학(4년제 이상) 졸업, 7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 8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신 스스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1은 하층, 2는 중하층, 3은 중상층, 4는 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자료분석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인 장애인 1인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이들의 생활만족도,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모형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4를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5,000회(유의수준 .05)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성별, 장애정도, 연령, 최종학력,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536명(64.7%), 여성 292명(35.3%)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장애 정도는 심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502명(60.6%),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26명(39.4%)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N=828)			
구분	분류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536	64.7
	여성	292	35.3
장애 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502	60.6
	심한 장애	326	39.4
연령	15~29세	22	2.7
	30~39세	67	8.1
	40~49세	208	25.1
	50~59세	248	30.0
	60~70세	283	34.2
최종학력	무학	32	3.9
	초등학교 졸업	104	12.6
	중학교 졸업	143	17.3
	고등학교 졸업	348	42.0
	대학교(4년제 미만) 졸업	73	8.8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110	13.3
	대학원 석사 과정	15	1.8
	대학원 박사 과정	3	0.4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551	66.5
	중하층	237	28.6
	중상층	34	4.1
	상층	1	.1

연령은 15~29세 22명(2.7%), 30~39세 67명(8.1%), 40~49세 208명(25.1%), 50~59세 248명(30%), 60~70세 283명(34.2%)으로 나타나 60~70대 고령장애인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수를 보였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48명(42.0%)으로 연구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중학교 졸업이 143명(17.3%)으로 다음 순서로 나타났다. 그 외 최종학력 수준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은 110명(13.3%), 초등학교 졸업 104명(12.6%), 4년제 미만 대학교 졸업 73명(8.8%), 무학 32명(3.9%),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인 경우 18명(2.2%)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느끼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51명(66.5%)으로 연구대상자 중 가장 많았으며, 중하층 237명(28.6%), 중상층 34명(4.1%), 상층은 1명(0.1%)순이었다.

2. 주요 변수들의 특성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장애인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의 평균이 3.08(표준편차=.70)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결측치를 제외한 826명의 4점 척도의 평균이 2.68 (표준편차=.55)로 나타나 약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결측치를 제외한 823명의 4점 척도 평균이 2.71(표준편차=.37)로 나타나 대인관계능력과 마찬가지로 약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 변수의 특성

변수	N	Min	Max	평균(M)	표준편차(SD)
생활만족도	828	1	5	3.08	.70
대인관계능력	826	1	4	2.68	.55
자아존중감	823	1.2	4	2.71	.37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생활만족도,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생활만족도의 경우 대인관계능력($r=.254, p<.01$)과 자아존중감($r=.443, p<.01$) 모두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두 변수 중 자아존중감과 다소 높은 상관관계 수준을 보였다. 대인관계능력은 자아존중감($r=.374, p<.01$)과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생활만족도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1		
대인관계능력	.254**	1	
자아존중감	.443**	.374**	1

* $p<.05$, ** $p<.01$, *** $p<.001$

3. 생활만족도에 대한 대인관계능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1) 대인관계능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선 대인관계능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3.696, p<.001$), 19.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은 어릴수록($B=-.068, t=-2.830, p<.0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다고 인지할수록($B=.409, t=9.671, p<.001$)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 변수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175, t=4.026, p<.001$). 이는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원만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권오형·문재우, 2018; 박수경 외, 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인관계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그 결과 생활만족도를 향상키는데 기여함을 예측할 수 있다.

2) 대인관계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대인관계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1.020, p<.001$), 18.7%의 설명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어릴수록($B=-.030, t=-2.315, p<.0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다고 인지할수록($B=.109, t=4.802, p<.001$)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인관계능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 → 생활만족도			
	B	se	β	t
(상수)	2.270	0.186		12.189***
성별(여=0)	0.065	0.047	0.044	1.366
장애정도(심하지 않은 장애=0)	-0.039	0.047	-0.027	-0.821
연령	-0.068	0.024	-0.103	-2.830*
최종학력	0.005	0.019	0.010	0.283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	0.409	0.042	0.330	9.671***
대인관계 능력	0.175	0.043	0.136	4.026***
R^2	.193			
F	33.696***			

* $p<.05$, ** $p<.01$, *** $p<.001$

〈표 5〉 대인관계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 → 자아존중감			
	B	se	β	t
(상수)	2.100	.100		21.098***
성별(여=0)	.006	.025	.008	.247
장애정도(심하지 않은 장애=0)	-.027	.025	-.035	-1.061
연령	-.030	.013	-.085	-2.315*
최종학력	.010	.010	.038	1.008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	.109	.023	.166	4.802***
대인관계능력	.203	.023	.299	8.772***
R^2				.187
F				31.020***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203, t=8.772, p<.001$). 이 결과를 통해 높은 대인관계능력을 가진 장애인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 대인관계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과 자아존중감 두 변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46.788, p<.001$), 28.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은 어릴수록($B=-.050, t=-2.188, p<.0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다고 인지할수록($B=.333, t=8.192, p<.001$)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장애인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628, t=10.129, p<.001$).

4) 대인관계능력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대인관계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위해 SPSS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각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 대인관계능력은 자아존중감($B=.255, t=11.553, p<.001$)과 생활만족도($B=.137, t=3.165,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B=.760, t=11.977, p<.001$)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Shrout & Boiger, 2002). 대인관계능력이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의 부분매개를 5,000번 반복추출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6〉 대인관계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 → 생활만족도			
	B	se	β	t
(상수)	0.944	0.219		4.314***
성별(여=0)	0.065	0.045	0.044	1.453
장애정도(심하지 않은 장애=0)	-0.022	0.044	-0.016	-0.505
연령	-0.050	0.023	-0.076	-2.188*
최종학력	0.001	0.018	0.001	0.033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	0.333	0.041	0.269	8.192***
대인관계능력	0.050	0.043	0.039	1.178
자아존중감	0.628	0.062	0.333	10.129***
R^2				.282
F				46.788***

* $p < .05$, ** $p < .01$, *** $p < .001$

〈표 7〉 각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경로	B	se	t	LLCI	ULCI
대인관계능력 → 자아존중감	.255	.022	11.553***	.212	.298
대인관계능력 → 생활만족도	.137	.043	3.165**	.052	.221
자아존중감 → 생활만족도	.760	.063	11.977***	.635	.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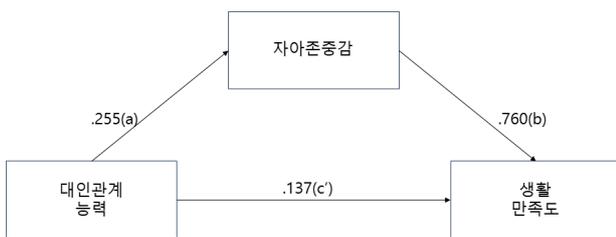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8〉 매개효과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구분	측정결과		95%신뢰구간	
	Effect	BootSE	LLCI	ULCI
총효과(c)	.330	.043	.245	.415
직접효과(c')	.137	.043	.052	.221
간접효과(ab)	.194	.024	.150	.243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매개효과 크기는 .194 였으며, 대인관계능력이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생활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상한 값과 하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능력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장애인 1인가구의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며, 생활만족도 수준 또한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이 개인의 내적 요소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생활만족도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강담정(2022), 김성중(202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다음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매개효과 분석 결과

V. 결론 및 제언

다양한 가구 유형 중 하나로 1인가구가 자리매김하는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과 1인가구라는 두가지 특수성에 놓여있는 장애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 1인가구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생

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며, 대인관계능력과 생활만족도 간에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관계를 구성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대두되는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 1인가구 스스로 자신의 삶에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능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33.696$, $p < .001$), 19.3%의 설명력을 가졌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은 어릴수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다고 인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인관계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1.020$, $p < .001$), 18.7%의 설명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 어릴수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다고 인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인관계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46.788$, $p < .001$), 28.2%의 설명력을 보였다. 연령은 어릴수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다고 인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능력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은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인관계능력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인관계능력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장애인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므로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요 방법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대인관계 프로그램 진행시 교육내용 전달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는 장애인으로써 경험한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특징을 확인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당사자에게 맞는 개별화된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경제활동 중인 장애인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대인관계능력과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밝혀냄으로써, 추후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인 1인가구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조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장애인 1인가구의 대인관계능력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생활만족도 향상 방안을 알 수 있었지만, 장애인과 1인가구라는 두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연구대상들의 특수성을 적용한 구체적인 해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 1인가구를 직접 조사하여 연구대상들이 장애인 1인가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과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1인가구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과 안정적인 1인가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 1인가구 형성 배경 및 현황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1인가구 생활만족도 연구는 현재 다양한 주제로 다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김정은 외, 2023; 서지원·양지운, 2017; 서지원·이수진, 2021; 송혜림·강은주, 2021; 이현민·최미선, 2022) 장애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장애인과 1인가구라는 특징을 모두 반영한 생활만족도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 1인가구의 경우 성장과정에서부터 가족과 분리하여 생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활만족도 조사시 대인관계능력 형성의 최초 기반이 되는 가족환경을 파악하여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가족생활 지원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장애인 1인가구 생활만족도 향상에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확대되어가는 1인가구 정책에서 다양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1인가구 정책이 시급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방안 마련, 지역별 1인가구 조례제정, 1인 가구 기본계획 발표, 1인

가구를 위한 포털 사이트 개설 등 1인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더불어 장애인복지정책에서도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장애인 가구의 다양성까지는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1인가구 정책이 주거, 경제, 안전 등 다양한 영역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에서도 장애인 삶의 다양성을 반영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 고찰 결과(김현지 외, 2023; 박주영, 2018; 장민선, 2016) 고령 장애인 1인가구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노년기 장애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넷째, 장애인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여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사회적 기술향상 훈련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술향상 훈련은 대인관계를 만족스럽게 발전시키고 개인의 사회적인 목표성취를 촉진시키는 사회 상황에서 적절하게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전석균, 1994),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1인가구 소모임을 구성하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각 지역의 가족센터에서도 1인가구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송혜림 외, 2020; 여성가족부, 2021), 지역의 장애인 1인가구와 가족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및 집단상담 등을 포함한 사회적 기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면 장애인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다양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의 특성상 기존 데이터 변수들을 활용해 독립변수를 구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연구범위를 확장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둘째, 선택한 변수의 문항 자체가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더욱 풍부한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 구성과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경제활동 중인 장애인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향후 비경제활동 장애인 1인가구나 장애인 다인가구를 함께 포함하여 집단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1인가구로 생활하는 경제활동 중인 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을 통한 생활만족도 향상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 1인가구의 특수성에 기반한 실천적·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1) 강담정(2022). 정신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과 장애수용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강은나 · 김혜진 · 김영선(2017). 도시지역 1인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과 우울 수준. 보건사회연구, 37(2), 184-215.
- 3) 고민석 · 김동주(2014). 경제활동상태가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4(2), 137-164.
- 4) 권오형 · 문재우(2018). 장애인 대인관계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중소기업융합학회, 8(6), 327-333.
- 5) 기획재정부(2020).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i).
- 6) 김선주(2020). 1인가구의 연령대별 특성과 주거만족도. 주택도시연구, 10(1), 39-62.
- 7) 김성중(2023).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대인관계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혼합연구방식의 적용.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김성희 · 이연희 · 오옥찬 · 황주희 · 오미애 · 이민경 · 이난희 · 오다은 · 강동욱 · 권선진 · 오혜경 · 윤상용 · 이선우(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9) 김연옥 · 임경원 · 이혜진(2012).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만족도의 차이. 직업재활연구, 22(3), 49-65.
- 10) 김영란 · 주재선 · 정가원 · 배호중 · 선보영 · 최진희 · 김수진 · 이진숙(2021). 2020년 가족실태 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11) 김은주 · 김향 · 윤주영(2019). 1인가구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잠재계층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0(4), 449-459.
- 12) 김자영 · 한창근(2016). 자산수준과 취업여부 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장애와 고용, 26(3), 5-30.
- 13) 김정은 · 박정윤 · 서지원 · 송혜림(2023).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생활실태 및 생활만족도: 김포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3), 21-37. DOI : 10.22626/jkfrma.2023.27.3.002.
- 14) 김진영(2013). 여성 1인가구 소형임대주택계획을 위한 주거의식과 주거요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4(4), 109-120.
- 15) 김현지 · 김용진 · 오윤지 · 김태용 · 현지원 · 권준성(2023). 2023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 16) 나대웅 · 이정화(2023). 1인가구 중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일상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정도의 조절효과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3(3), 5-31.
- 17) 문성계 · 손민성 · 최만규(2017). 신체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가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7(3), 217-239.
- 18) 문영임 · 이성규 · 김수정(2020). 정신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서 · 행동장애연구, 36(3), 271-291.
- 19) 박명숙(2012). 장애여성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6(1), 139-158.
- 20) 박수경 · 이선우 · 김소민(2018). 성인발달장애인의 문화 · 여가활동이 긍정적 대인관계를 매개로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장애인복지학, 40, 123-149.
- 21) 박주영(2018). 고령장애인 실태와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272-280.
- 22) 박주영(2019). 장애인 노인 고용특성 및 취업 영향요인: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 디지털융복합연구, 17(7), 387-393.
- 23)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4) 박현숙(2014). 중증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0, 105-123.
- 25) 배성만(2015). 한국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6(3), 51-65.
- 26) 보건복지부(2021.04.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846>에서 2024.01 인출.
- 27) 서원선 · 이수용(2017). 고령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분석. 장애인복지연구, 8(2), 91-125.
- 28) 서지원 · 양진운(2017). 1인가구 생애주기별 성별 생활만족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90.
- 29) 서지원 · 이수진(2021). 중년 무배우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 분석: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87-99. DOI : 10.22626/jkfrma.2021.25.4.007.
- 30) 설동필 · 우윤석(2012).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 정책의 효율성 연구. 한국정책연구, 12(4), 217-242.
- 31) 송혜림 · 윤소영 · 고선강 · 강은주(202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가구 대상 특화 프로그램 방향성 모색-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4(3), 1-17. DOI : 10.22626/jkfrma.2020.24.3.001.
- 32) 송혜림 · 강은주(2021). 취업 1인가구의 일-생활 균형: 20-30대 미혼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55-70. DOI : 10.22626/jkfrma.2021.25.4.005.

- 33) 여성가족부(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 34) 원유진 · 조택연(2020).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범죄예방 복합주거공간 연구: 여성 공유주택에서의 공공감성과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5(5), 201-214.
- 35) 윤민석 · 변급선 · 이영주(2022). 장애인 1인가구, 주거지원 확대하고 지원기준 정립, 지원체계 구축 필요. ISSUE PAPER, 서울연구원.
- 36) 이동욱(2023).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자아존중감이 장애수용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 분석: WarpPLS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9(1), 145-186.
- 37) 이소영 · 엄순철(2018). 청년기 1인가구를 위한 주거요구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7(2), 77-85.
- 38) 이윤지 · 변혜미 · 김호진 · 조신영 · 임예직 · 이지우 · 변민수 · 최종철 · 박민규(2023).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39) 이현민 · 최미선(2022). 노인 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 지역사회환경 요인. 보건사회연구, 42(2), 262-279.
- 40) 임미화(2020). 성별 주거비용 비교분석: 1인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28(2), 113-129.
- 41) 임상옥 · 전지혜(2021). 장애인 1인가구의 형성과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장애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22(4), 1-21.
- 42) 임성욱(2022). 세대유형별 1인가구의 주거빈곤과 정신건강 -Process macro model 6 적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8(11), 83-93.
- 43) 임정후 · 이성규(2023). 사회적 배제가 1인 가구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8), 590-598.
- 44) 장민선(2016). 여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법정정책적 지원 방향. 젠더리뷰 42, 22-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45) 장수빈(2019). 임금 근로 장애인의 대인관계능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자기효능감 및 장애수용의 매개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6) 장재원 · 이지원(2019).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발생에도 시환경이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정책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85-86.
- 47) 전병재(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학회지, 11(1), 107-130.
- 48) 전석균(1994). 정신분열증 환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9) 채성주(2015). 충북지역 1인 가구의 주거실태 분석과 정책방향. 충북발전연구원.
- 50) 통계청 보도자료(2022.12.07).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tag=&act=view&list_no=422143&ref_bid=에서 2024.04 인출
- 5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0). 2020년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2차 웨이브).
- 52) 행정안전부(2023.08.22). 행정안전통계연보. https://www.mois.go.kr/fi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sessionId=pT-BxuWpYTx41tVDoMbilg+-,node10?bbsId=BBSMSTR_000000000013&nttId=102952에서 2024.01 인출
- 53) 허세미 · 이에나(2023). 미취업 장애인의 대인관계 및 장애수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46, 39-62.
- 54) 황경란 · 박소영 · 박수선 · 조성희 · 최성은(2021).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 경기복지재단.
- 55) Coopersmith, S. (1981). SEI Self-Esteem inventories manual. Redwood City, CA: Mind Garden.
- 56)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57) Schlein, S., Guemey, B. G. & Stover, L. (1971). Relationship enhancemen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58)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55.

- 투 고 일 : 2023년 12월 13일
- 심 사 일 : 2024년 01월 09일
- 게 재 확 정 일 : 2024년 01월 25일